

쌍용정유 탱크로리 운전자 황 계 호 씨

탱크로리와 함께 하루를 열고 닫는다

손 은 희

<쌍용정유 홍보실>

황계호씨가 쌍용정유와 인연을 맺은 것은 81년 상업가동 개시와 함께였다. 10년을 넘게 쌍용정유의 심볼마크를 단 탱크로리를 몰고 있는 것이다.

「저의 하루는 남들과 반대로 시작됩니다. 보통 밤 12시쯤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탱크로리를 몰아 온산공장에서 기름을 싣고 주문처까지 배달을 해야되기 때문이죠. 보통 하루에 왕복 세번 정도 온산공장에 들릅니다. 오후에 일이 끝나면 사무실에 들렀다가 퇴근을 하죠」

그가 집에 들어서는 시간은 보통 저녁 7시쯤. 그러면 바로 저녁식사를 한후 잠자리에 든다. 4시간 뒤인 12시쯤 일어나기 위해서이다. 밤과 낮을 거꾸로 살다보니 본인 황계호씨뿐 아니라 부인 박재말씨의 남모를 고충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남편이 깰까

봐 조용조용히 초저녁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TV 연속극도 담쌓고 산지가 오래다. 그리고 남들은 다 잠이 든 시간에 정성껏 황계호씨의 도시락을 싣는다.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할 정도였죠. 단지 큰 탱크로리를 몰고 1년 사시사철 내내 길에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앞서요, 일단 집에 들어와야 안심하게 되죠」

77년에 결혼해서 슬하에 아들 승현군(대구 신암중학교 3학년)을 두고 있는 황계호씨는 충북단양이고향이다. 6남매의 장남인 그는 어려서부터 고향을 떠나 청주에서 공부를 한후 대한 통운에 취직을 했다. 우연한 기회에 친구와 함께 대구로 와서 이렇게 20년 가까이 대구 사람이 다되어 살고 있다. “젊어



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도 있지만 고생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이야기 보따리를 밤새 풀어놔도 부족할 정도란다.

대한통운에서 화물차로 시작, 버스 트럭 등을 운전하다가 부관점에 취직해서 탱크로리를 운전하게 되었다. 기름과 인연을 맺은 것도 쌍용과 첫대면을 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다. 12년간 쌍용정유 탱크로리와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 20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길에 있는 그의 고생과 어려움을 꼽자면 한두가지가 아니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특히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큰일날뻔 한적도 많다고 말한다. 탱크로리를 몰아본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액체가 실린 차가 한번 휘청거리면 쉽게 차를 세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는 항상 무리한 운전은 하지 않으려 애쓴다. 또 하나의 어려움이라면 운전을 오래 하다보니 특별히 건강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운전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토끼땀을 뿜어 보기도 한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사치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는 아무 것이나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부인이 싸주는 도시락을 먹고, 될수 있는 대로 술·담배를 하지 않으려 애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특히 요즘은 교통체증이 심해 예전보다 훨씬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지만 길에서 만큼은 조심성 있게 움직이자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는 차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쓴다. 위험물 적재차량이기 때문에 혹시 사고가 생기면 주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정비 검사 보험등에 신경을 쓴다.

그는 쌍용정유의 얼굴이란 생각이다. 그래서 그는 차량관리도 철저하게 한다. 그가 잘못된 행동이 결국 소비자한테는 쌍용정유의 실수로 느껴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 온산공장에 갔을때 정말 허허벌판이었어요. 겨울이면 웬 바람이 그렇게 부는지 추워서 혼이 난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좋았고 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운 줄도 모르고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처음 쌍용정유와 인연을 맺은 이야기를 하며 미소짓는다.

그는 10년이 넘게 벙커씨유 차를 몰고 있는데 86년도 겨울철에 B-C유가 왁스성분이 많아 굳어져 반쯤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도 한겨울 추위에 스팀으로 녹여가며 배달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한번 맡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그의 성격이다. 그래서 부인 박재말씨는 항상 걱정이 앞선다. 젊어서 유해물질을 만지다가 입원한 적까지 있는 남편의 열성이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이고 안전운전 또한 잘못할 걱정임은 물론이다.

황계호씨는 말수가 적은 편이다. 일을 할때나 집에서나 큰소리 내는 법이 없고 말을 별로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다정다감한 남편, 아빠는 아니라는 것이 가족의 결론이지만 황계호씨의 아내사랑은 더욱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승현을 가졌을 때 10달 내내 입덧으로 고생하는 아내를 보다 못해 아내와 함께 입덧을 할 정도였다. 「그래서 슬하에 승현 하나만 두었다」며 웃는다.

그는 추위도 내의를 입지 못한다. 젊었을때부터 항상 추운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들어서면 두드러기가 생기는 체질로 변했다고 한다. 힘들었던 객지생활에 죽을 고비도 몇번 넘겼던 그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일에 대한 태도는 한결같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일 하나는 성실하고 푹부러지게 잘한다고 모두들 말한다.

「성실」하나로 버텨온 시간들이었다. 작년 여름 잠시 쉬면서 오히려 병이 생겼다는 부인의 말에서처럼 그에게 일은 생활이요, 휴식이었다. ♣